

반제국적 주체성: 예수

류 의 근(신라대)

1. 문제 상황

2005년 5월 청와대 경제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영화 내부자들에서 고위 언론인은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7월 회식 자리에서 고위 교육 공무원은 “민중들은 개돼지와 같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을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사회와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경제와 시장의 논리, 재벌 언론, 그리고 학벌 체제¹⁾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헬조선, 개한민국이라고 규정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규범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질서는 강고한 사회적 삶의 생태계로서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방식을 지배한다. 앞서 말한 자본 권력, 언론 권력, 교육 권력은 시민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주권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권 권력이 훈육과 통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는 논리와 구조가 될 때 제국 또는 제국주의가 탄생한다. 이러한 지배 논리와 구조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때 세계 제국, 지구 제국²⁾이 된다. 이를테면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로 전지구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라는 의미에서 세계 제국, 지구 제국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제국적 질서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국가의 주요 주권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제국적 현실을 살고 있다고 분석된다. 국가의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헌법상의 진리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가 시민들은 국가의 주요 지배 질서와 논리에 거세되어 자동화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국적 현실이 주권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를 자신의 생활 세계의 철칙으로 내면화하고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필요도 없는 지배적 질서로 수용하고 순응하는 청년들의 생활방식이 그렇다. N포세대³⁾라고 불리는 청년세대가 삶의 포기를 가져오는 연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그 포기를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사고하는 방식에서 제국적 현실의 지배에 충실히 길들여져 중독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삶을 주도할 것인가”⁴⁾라는 화두를 던지고 오로지 자기의 인생 경영을 위해서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자기 경영 개발론의 실상은 그 제국적 현실에 충성을 다해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개인의 자유 의지는 신자유주의 한

- 1) 학벌 체제를 한국 사회의 지배 구조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김상봉,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2004.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지배 계급의 정체성을 학벌 계급, 학력 자본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 2) 지구제국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조정환, 『지구제국』, 갈무리, 2002, 제1부 제국. 저자는 내가 이 글에서 다룰 주제와 연관되는 제국적 주권과 질서에 저항하는 혁명적 주체성의 관점과 구성이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 3)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5포세대는 여기에 취업, 주택을, 7포세대는 여기에 친구,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다. 또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도 있다.
- 4) 이훈, 『어떻게 삶을 주도할 것인가』, 모아북스, 2016.

국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기업가적 자아로, 경영가적 자아로 계발하는 의지로 변질되었고 자기 계발하는 주체에 주력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주체성의 형성도 허용하지 않는 의지로 고착화되었다.⁵⁾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와 시장 논리가 개인의 자아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아로 주체화하는 방식이고 그 귀결점이다.⁶⁾ 그렇다면 개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제국의 현실을 살면 살수록 제국은 강화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국의 강성에 봉사할 뿐이다. 개인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제국의 자유는 더욱 많아진다. 마침내 제국은 우리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 되었다. 우리 시민들은 제국적 시민들이고 우리 자아는 제국적 자아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제국적 주체들이다.

제국 현실 추수주의라고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자동화된 주체화 방식 말고 다른 주체화의 방식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⁷⁾ 세계 제국과 국가 제국의 현실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갈수록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구축하는 일이 절실하다. 세계 제국과 국가 제국의 지배와 통제가 세련되게 교활하게 실현되는 만큼 신자유주의적 자아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성의 개발과 형성은 극히 요긴한 과제이다. 제국적 현실에 복종하고 종속하는 예측적인 주체성이 아니라 전지구화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시장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치적 주체의 구성이 긴박한 과제이다. 이것은 제국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던져진 도전장이다. 개인의 자유 의지가 반제국적 주체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아의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과업은 제국의 시대에 제국의 물신과 우상을 거역할 수 있는 제국 비판 행위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는 이 글에서 제국적 현실에 대해 포스트모던적으로 주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예수의 주체성을 제국적 질서와 현실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반제국적 저항적 주체성으로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반제국적 주체성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안적 주체성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예수를 제국의 현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방법론적 경향은⁸⁾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서 그 연구 성과를 제국 비판의 전략과 운동에 필요한 주체성 구성에 이용하고자 함이 이 글의 의도와 배경이기도 하다.

2. 포스트모던적 주체성

5) 이 과정의 자세하고 실제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6)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세대는 헬조선 즉 지옥 같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한국에 살아도 각자가 노력해서 경쟁력만 갖추면 잘 될 것이라는 능력주의·능률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젊은 세대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묻고 태어난 팔자론을 한탄만 할 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옥의 체계와 싸우거나 봉기할 생각을 할 줄 모른다. 각성하기는커녕 포기하고 이민을 거론한다. 아마도 그런 생각은 지옥에서 더 참고 살다 보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변화와 개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절망과 체념에 더욱 머무를 수도 있다.

7)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보고 반대하는 니콜라스 루만(Niklas Luhmann) 같은 사회학자도 있다. 서도식, 「시스템과 인간」, 『대동철학』 17집, 대동철학회, 2002, 64쪽. 반면, 크리스토퍼 래쉬(Christopher Lasch) 같은 역사학자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사회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찬훈, 「현대 사회 구조와 주체성」, 『대동철학』 5집, 대동철학회, 1999, 274쪽. 바디우나 지젝 같은 철학자는 이러한 현대인의 주체적 책임 의식과 윤리를 필사적으로 강조한다. 김용규, 「주체로의 복귀와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 바디우와 지젝」, 『대동철학』 43집, 대동철학회, 2008, 70-71; 80쪽.

8)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리처드 호슬리, 『예수와 제국』;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존 도미니크 크로산, 『하나님과 제국』, Joerg Rieger, *Christ and Empire*.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전지구화로 인해 야만적인 제국주의적 지배가 강화되고 이와 함께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안정적으로 규제하는 주권 권력 즉 제국을 만들어간다. 제국은 금융, 생산, 분배, 소비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지구적 네트워크 경제를 지배하는 권력 체제를 요구하기 마련이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경제가 하나의 세계 질서로 자리를 잡은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와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지구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대한 현실이 있음을 주목한다.¹⁰⁾ 이것은 전지구적 네트워크 경제를 규율하는 지배 기구들에 맞서는 투쟁에서 가능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적 자아는 이러한 투쟁에 적합한 존재인가? 자아와 사회를 포스트모던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아는 타자에게 사용하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나 장치로서, 진리는 권력 사용의 합법성을 위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와 사회를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로 환원했고 근대와 같은 개인의 이성을 낙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아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대정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러한 신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며 근대인은 순진무구했다고 비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인들이 사회의 진보나 보편적 합리성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사실을 들어 그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트모던적 자아의 사정은 그 이전보다 더 나아졌는가?

근대의 자아가 능동적 주체성으로 특성화된다면 탈근대의 자아는 상황적 피조성으로 특성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가 인간 이성의 능력, 사회 진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와 정책에 대한 낙관적 신뢰감을 특징으로 했다면 후자는 그것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비판적 절망감을 특징으로 한다. 포스트모던적 자아는 규범에 대한 자신과 안정적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이들의 일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비난을 쉽게 하고 적의를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실재를 구성하는지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재를 구성하는 실체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다.¹¹⁾ 그것은 나의 바람일 수도 있고 나의 확신일 수도 있고 자기 보호일 수도 있고 권력 이익의 통제와 조작일 수도 있다. 실재를 구성하는 실체는 애매하고 모호해진다. 대상의 자족성은 증발하고 실재, 언어, 기호 사이의 구별은 흐릿해진다. 실재가 무엇인지, 자아의 동일성은 무엇인지는 명석판명하게 지각될 수 없다. 의미나 진리의 규범과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고정된 의미를 담은 본문이나 텍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될 수 없다. 규범과 의미는 사회적 역사적 현실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그리하여 합리적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과 여지는 점점 열어진다. 이성적 논의는 가장된 권력 관계의 위장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고 설득과 압력을 가장한 힘의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이성적 논의가 소구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익 집단과 압력 단체의 시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갈등은 격화되며 폭력이 유발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포스트모던적 자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함축이나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던적 자아는 삶을 긍정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비난하면서 비판적 절망적으로 이해한다. 이렇듯 포스트모던적 자아는 사회에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부추기고 이렇게 되면 약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란 어렵다.¹²⁾ 이것이 포스트모던적 자아가

9)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편, 『제국의 신』, 동연, 2008, 125, 134쪽.

10)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대하는 1999년의 시애틀 투쟁, 세계경제포럼(WEF)에 반대하는 2001년의 세계사회포럼(WSF) 등이 그 사례이다.

11) 리처드 미들턴·브라이언 왈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김기현·신광은 옮김, 살림, 2007, 60-65쪽.

사회 해방적이기 어려운 이유이다.¹³⁾

3. 예수의 주체성

(1) 제국 사회에 대항하는 주체성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취급하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다. 예수 해석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¹⁴⁾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당시의 시대적 현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밑바닥 인생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취급하는 해석은 별로 없다. 그러한 해석은 주류에 속하지 않으며 기독교가 강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자 더욱 소수파가 되었으며 좋아하지 않는 해석으로 간주되었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의 종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는 부자의 종교가 되었다. 기독교는 약자의 편보다는 강자의 편에 서는 종교로 인식되었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억눌린 자”¹⁵⁾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냈다고 믿는 예수의 정신과 실천은 기독교의 주변부에 자리할 뿐 중앙부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기본권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많은 힘이 되어 주곤 하지만 여전히 지배적 사회 체제와 구조의 희생양이 되는 불의한 현실을 저항하고 구속하는 데는 취약하다. 그들이 기독교를 믿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피조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힘을 가지고 싶을 때 기독교는 힘 있는 사람에게 기울고 힘 없는 사람에게서 슬그머니 돌아선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그들을 위한 종교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자리매김 되어 있다. 기독교는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¹⁶⁾가 되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사회 지배 계층의 박해와 사회 체제의 모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널려 있다. 사회의 지배 권력과 국가의 공권력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행사되고 그 폭력 앞에 무력하게 당한다. 그들은 지배 권력의 불의와 폭력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언제나 무력감을 느끼고 증오와 원한을 갖게 된다. 로마 제국의 폭력과 전쟁을 목전에서 겪으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마한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부터 누적된 원한과 슬픔과 비통과 분노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가 그들의 심리적 외상이다. 당시의 종교적 지배 계층이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그들 서민들은 궁핍했고 무식했고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이 없었다. 예수의 부모는 돈이 없어서 반듯한 헌물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헌물인 비둘기를 봉헌함으로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¹⁷⁾

12) 리처드 미들턴·브라이언 왈시, 위의 책, 71-74쪽.

13) 여기서는 탈근대적 주체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류익근, 「주체의 사망과 부활」, 『철학연구』 133집, 대한철학회, 2015, 50-58쪽.

14) 야로슬라프 펠리칸 지음, 『예수의 역사 2000년』, 김승철 옮김, 동연, 1999. 이 책은 1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 해석의 역사를 18개의 예수상으로 유형화해서 기술하고 있다.

15) 누가복음 4:18. 성경을 인용할 때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새번역본)』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구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수정할 것이다.

16) 잭 넬슨 폴마이어,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실종된 예수를 되찾는 길』, 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원, 2012.

17) 누가복음 2:24.

나는 아직까지 교회가 전해주는 설교에서, 기독교 계열의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는 설교에서 한국 사회의 악한 사회적 현실과 국가의 폭력과 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권을 허투루 대하는 정사와 권세 즉 통치자(rulers)와 권력자(authorities)¹⁸⁾ 이를테면 정부와 지배 집단의 권력 기구들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목회자가 사회의 지배 세력과 권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와 법이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와 환대를 위해서 이러한 사회 체제와 구조와 싸우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구조와 보호와 방어가 필요한 그들을 무시하고 꺼안지 못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대다수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속내는 나는 그들보다 우위에 있고 낫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감도 없거니와, 따라서 하물며 민주적 심성과 영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는 가난한 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빼앗긴 자, 재산이 별로 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것인가?

예수는 그 반대의 말을 했다. 예수는 “나를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현실 즉 “천국을 지상에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것이 예수의 삶과 실천의 핵심 요체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천국을 제시했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살았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예수가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는 무엇인가? 천국 티켓을 가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고통을 외면할 권리가 있다고 누가 말해줬는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한민족에게 필요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방이고 광복이며 독립이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현실은 무엇인가? 대답은 동일하다.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살았던 유대민족에게 무엇이 절실했겠는가? 예수인들 달리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도 유대인이고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고 예외 없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예수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시 하면 원래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던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시 한 번 바뀌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 날이 올 때까지 슬픔과 절망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우울한 정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에 저항할 수 없는 예측적 주체로서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는 당시의 시대적 현실 속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갔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힘겨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삶의 방향은 정반대이다. 즉 예수는 로마의 제국적 현실에 대하여 종속적이며 예측적인 삶을 거부했던 것이다. 예수라고 해서 당시의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을 터이고 보통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았던 유대교를 따랐을 것이며 동일한 사회적 종교적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 중의 한 명이지만 동시에 아니었던 것이다.

예수는 그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그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¹⁹⁾ 그 당시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18) 에베소서 6:12; 골로새서 2:15.

19) 누가복음 17:21. 새번역본에는 <안에>가 <가운데에>라고 되어 있으나 나는 성경 구절의 맥락과 의미를 숙고할 때 <안에>가 맞다고 생각했다. 새번역본의 각주에는 <가운데에> 대신에 <안에>로 번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 구절의 맥락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꾸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데서가 아니라 내부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치적 영광과 함께 도래하기를 대망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을 한 것이다. 예수 출생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갈릴지 지역의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세포리스(Sepphoris)에서 유다스(Judas)라는 이름의 혁명가가 로마에 항거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군이 유다스를 포함한 가담자 약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이 일어났고 청년 예수 또한 그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²⁰⁾ 기원 후 1세기를 전후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대왕의 유아학살, 로마군의 압제와 만행, 가혹한 세금 징수, 가속화하는 경제적 빈곤, 그리고 메시아 운동의 빈발로 점철되어 있었다. 예수는 그러한 암울한 묵시의 시대에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²¹⁾고 말했다.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언급은 당대의 메시아 대망의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당대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했는가? 예수는 당대의 그 처참한 현실에 눈과 귀를 막았고 자기 민족의 분노와 고통에 무관심했으며 자기 민족의 비극과 정서에 아무런 공감과 고뇌도 없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존재로서 세계를 구원하겠다고 나선다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달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예수를 믿는 나라도 더 이상 그를 믿지 않고 떠나겠다. 하지만 예수의 언급은 유대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접근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극히 지혜로운 통찰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로마의 제국적 현실을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내면적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이다. 그것은 개개인이 내면적 세계의 질서를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지령이다. 예수는 로마를 외부적으로 대응하는 유대 공동체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고 돌아설 것을 명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근본 이유이다.

이제 예수의 언급이 어떻게 해서 원수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 공동체의 자세와 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보자. 예수의 그 말은 유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을 대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한 명 원수 로마와 싸울 때 견지해야 하는 마음의 기본자세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해 보자. 내가 폭력적이고 사악한 통치자나 권력자와 싸울 때 사사건건 마음의 평정과 자비와 긍휼을 견지하지 못하고 저항하거나 투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길 때도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패배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겼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등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태도는 최우선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흘트리지 않고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 일에 실패하면 자신이 전투를 개시할 수 있는 거점과 진지는 날아간다. 진지 구축이 불안전하면 전투의 결과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예수는 너희들이 로마에 대항하려면 이 전선부터 최초로 내면에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사와 권세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면으로 위장하고 건강부회, 교언영색, 감언이설, 선전선동, 거짓, 기만, 술수, 사기, 속임, 갑질 등의 방식으로²²⁾ 갑의 위치에서 피해자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데 아

이해될 수 있다.

20) 레자 아슬란, 『젤롯』, 민경식 옮김, 와이즈베리, 2014, 85-87쪽.

21) 누가복음 17:20, 23.

22) 성경은 이러한 샅된 일들을 일컬어서 악마적, 사탄적이라고 표현한다. 요한복음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다.”

주 능수능란하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의 권력과 지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사술을 다 부리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이러한 거짓 전략과 전술에 대항하고 패퇴시킬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견지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쉽사리 저항과 부정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황폐화되며 관용과 자존감과 존엄성은 이지러진다. 이리하여 저항하고 부정하는 마음은 저절로 무너지고 나중에는 적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냉소와 경멸만이 남는다. 정사와 권세에 대한 저항이 비극으로 끝나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극단에 이르면 저항자들은 손에 무기를 드는 즉 무장 봉기하거나 테러를 감행한다. 예수 당시에 빈발했던 메시아 운동에서 젤롯(열심당원) 내지 사카리(단검)파의 보복적 투쟁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것은 억울한 피해자나 원통한 사람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저항 방식이다. 저항이 내적 마음의 외적 행동이라면 그러한 저항은 달리 해석하면 압제자에 대한 무능과 무력감의 표출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예수는 유대 공동체가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분노로 치솟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오갈 데 없는 위치에 처해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오는 낮아진 겸손과 평화의 마음을 내면에 갖추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제의 그 말을 던진 것이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만행에 치를 떨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 그들의 입맛대로 되는 것이며 조종당하기 마련이다. 예수는 너희들의 운명을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형의 등급을 높높이 유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게 된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내적 마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예 시작조차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원만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루고 싶으면 로마 제국의 현실에 대한 너희의 마음부터 제어하라는 충고이다. 또 동시에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제의 그 말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 역설적인 말이다. 한 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나 통치가 있도록 그 자세부터 고치라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로부터 이 땅의 구원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의 말은 로마제국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유대 공동체의 개개인을 구속하고 해방하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된다. 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해방의 시작(arche)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수의 말과 논리는 여기서 제국의 현실에 반하는 주체성을 육성하고 유대 민족의 주체성을 새롭게 갱신하는 자유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시에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의 진의도 확연해진다. 로마는 유대 공동체의 적이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는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적군을 사랑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목숨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닌가? 사회의 변방에서 올바르게 대우도 받지 못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 강자와 지배자의 억압에 눌려 있는 사람들더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누구도 이 말을 따를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와 힘센 자를 결박하고 우위를 점하며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간단명료한 삶의 원리요 기술이요 지혜다. 그들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열패감과 무력감을 일거에 떨쳐버릴 수 있는 신비의 말이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는 이유이다. 그 구원의 말씀은 38

년 된 중풍 병자를 단번에 일으켜서 걸어 나가게 하는 바²³⁾, 모든 물리적 신체적 환경과 사회적 변화와 지배적 질서의 전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주체를 세우고 주체성을 구현한다.²⁴⁾ 지배 받는 주체를 지배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주체(성)이야 말로 진정한 주체성일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이러한 주체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로 여겼다.²⁵⁾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도록 한 기쁜 소식(gospel)이다.²⁶⁾

예수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²⁷⁾ 말했다. 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고²⁸⁾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유대 공동체를 처참하게 유린했던 로마인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빛, 같은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에게 유대인이나 로마인은 구별되지 않는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인은 원수로 여겨지겠지만 예수나 하나님에게는 모두 자신의 피조물로 자기 자식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모든 인간을 신의 자녀로 보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마음이 주인과 노예,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등등의 관계에서 강자는 약자에게 평화를, 약자는 강자에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양측의 대립과 반목은 자칫 파행으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신의 자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사랑하라고 자신을 세상에 보낸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던 착한 자식이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나쁜 자식인 셈이다.²⁹⁾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체득하기 위해 예수를 사사해야 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나한테 와서 배워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³⁰⁾ 로마 제국 지배 하의 유대인들은 종교적 율법의 준수와 제국적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마음의 쉼을 주고자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친다. 당대의 제국적 현실을 직면하고 대응하는 방법에서 예수는 다른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한 가지 때문에 메시아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었다. 유대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맛보게 함으로써 구조될 수 있었다. 예수에게 얹힌 멍에, 예수가 짊어진 짐이 어째서 편하고 가벼웠을까? 로마는 항상 도처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고 대제사장 계급들은 백성을 배신하고 로마의 편을 들었고 서민과 소작농들의 경제적 사정은 악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불만이 팽배한 탓에 유대 공동체는 천근만근의 스트레스와 심신 장애로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출구가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있다고 와서 배우

23) 요한복음 5:1-18.

24) 김근주, 「성전과 성문」, 2쪽, 부산교회개혁연대·느헤미야기독연구원 공동 주최, “느헤미야 신학캠프 2106 부산” 자료집(2016. 6. 25), 『일상과 제자도』.

25) 요한복음 3:1-21.

26) 누가복음 4:18.

27) 마태복음 5:44-45.

28) 마태복음 5:45.

29)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2011, 283쪽.

30) 마태복음 11:29-30.

라는 것이다. 너희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일러 주고 있는 것이다. 긴장된 억눌린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수용적이며 온화한 마음에 풀려지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버려진 자, 눈먼 자, 갠 자, 소외된 자, 약자, 낮은 자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겸손의 수준에서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 통제된 부드러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다스려진 덕성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¹⁾ 예수가 엮는 멍에와 주는 짐이 편하고 가벼운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그런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된 어떤 힘에 의해 심어지는 성품으로 체현된 한에서이다. 그런 정도가 최적에 이르게 되면 자신을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의 멍에와 짐까지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다. 예수의 이러한 성품, 미덕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에서 오는 도덕적 영성으로 볼 수 있다. 이 도덕적 영성이 예수로 하여금 당시의 유대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억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들의 저항 방식의 고단함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예수의 주체성의 특이성이다. 누구라도 이러한 주체성을 제대로 살펴보고 배우기만 한다면 사회 체제의 저항과 반역에서 오는 마음의 짐을 덜고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재충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다. 예수가 로마 제국의 현실에서 자신의 사역과 실천을 계속하고 마침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도덕적 영성에서 주어지는 에너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명마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에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³²⁾고 말했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아는 아주 사라져버렸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매일 지키는 새로운 주체성으로 실존할 수 있다면 자기 부인이 항상 가능하고 따라서 영원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예수의 주체성에 담겨 있는 도덕적 통찰³³⁾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공력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싸우면 세상의 불의에 질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유대인은 로마인을 사랑해야 한다. 로마인도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로마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는 유대 공동체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로마인을 질타하고 있는 셈이다. 폭력과 압제를 자행하는 정사와 권세에 도전하고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권위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함으로써 주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의 근본 의도이다.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가치 말하자면 정의, 사랑, 평등, 생명 등을 이 땅에 이루고자 세상의 모든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역설적 전략과 전술이요 원대한 포부이자 비전이다. 예수는 이러한 주체성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고 싶고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대적하기 위해 그 악인과 악행을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 예수의 길과 삶은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유일한 토대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죽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한 자들이 열두 사도들이고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그

31) 류의근·윤상진, 『도역서: 예수의 도를 위한 서신』,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88-190쪽.

32) 갈라디아서 2:20.

33) 예수의 도덕적 통찰과 윤리적 비전이 종래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혁신적이었으며 혁명적이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프레데릭 르누아르, 『그리스도 철학자』, 김모세, 김용석 옮김, 연암서가, 2009, 제2장 3절 그리스도의 윤리, pp. 84-102; Don Cupitt, *Jesus and Philosophy*, London, SCM Press, 2009, p. x iv.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과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우월성의 형성과 획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배우고 철저히 실천하는 데서 가능해진다. 우리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에 겁먹고 놀라고 놀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인격성과 우월성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가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르는 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는 주체성을 형성하고 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존재 가치요 이유이다.

(2) 대안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성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주체성이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내면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³⁴⁾를 가르친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파종하는 자는 예수 자신과 그 후보자들이다. 또 씨는 겨자씨처럼 매우 작은 씨이다. 따라서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는 극히 작다.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치하의 척박한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운동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맨땅에 머리를 박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씨는 고귀하고 성스럽고 존엄하고 거룩한 씨이다. 어쨌든 씨를 유대 땅에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불가능하다. 뿌려진 씨에 대해서 수용자는 네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거나 거부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로서 “길가밭”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어려움이나 장애 때문에 참여와 헌신이 오래 가지 못하거나 시들해지는 사람들로서 “돌짜밭”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다른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를 키우지 못하는 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시덤불밭”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넷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서 “좋은 땅”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예수는 예수따르미들이 좋은 땅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들의 경우 세상의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씨는 자라서 관목이 되고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³⁵⁾ 가장 큰 나무가 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그 당시의 유대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는 다른 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볼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피난처와 보호처를 제공하는 나무의 이미지에 비유해왔는데, 이를테면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가 그렇다. 하나님이 심고 키운 나무에 비유되는 이 나무들은 이집트 제국의 지배, 앗시리아 제국의 지배, 바빌론 제국의 지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거부하며 대안 사회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을 표현하는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예수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이러한 큰 나무를 만들어가고자 ‘내가 씨를 뿌리고 있으니 너희들도 깨닫기를 바란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듣는 자에게 달려 있을

34) 마가복음 4:1-34.

35) 마가복음 4:32.

것이다. 현행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주권을 따를 것인지 역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정치적 주권을 따를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주체가 되어 보지 않겠느냐는 은근하고도 강력한 초대인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명함으로써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치적 주권의 주체일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교수 방식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내적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참여하거나 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로마 제국적 현실에 대한 반제국의 맥락과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속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나무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³⁶⁾고 교육적으로 훈계한 것이다. 듣고서 각성된 의식을 가질 때 그는 좋은 땅으로 변모되면서 씨 뿌리는 자가 되고 현존 체제(status quo) 속에서 체념으로 살아가던 무주체성에서 주체적 존재로 태어난다. 이것이 “누구든지 거둬 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³⁷⁾고 예수가 말한 이유이다. 예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기반 위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지, 이 한 많은 땅에서 공허한 천국을 누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거리 전도에서 보듯 예수 믿고 사후에 가는 천국이나 그 이야기에 잠시 솔깃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체제와 지배 권력과 겨루는 정치적 복선이 아주 복잡한 살벌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일자무식의 개돼지 민중이 하나님의 주권의 주체로 변혁할지 말지에 관한 인생이 걸린 이야기이다. 그것은 로마 제국 치하의 가난한 유대 땅을 가난을 근절하고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수확을 가능하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저항과 투쟁의 이야기이다.

4. 예수의 주체성의 현대적 적용

예수의 대항적 주체성, 대안적 주체성은 전지구화된 자본주의 제국의 질서와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진다. 그것은 세계화된 자본 제국의 땅을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정의와 평화와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성이 있다. 지금도 신자유주의 제국 권력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존속하려고 시민들을 자신들의 입맛과 의도에 복속시키는 물질 이데올로기를 개발하고 전파함으로써 그러한 제국 권력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주체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질서가 전지구적으로 세계화되어 가는 현상은 멈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미 그러한 질서가 세계를 평정했다고 본다.³⁸⁾ 물론 이러한 전지구적 세계화가 세계 각국에서 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세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전지구적 세계화는 비대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관찰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가 이를 피할 수 없고 종주해야 하는 현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듯하다.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질서 속에서 개인의 구원적, 해방적, 비판적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주체가 제국의 주체가 아닌 즉 반제국의 주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거나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자본 세계 제국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변혁을 수행하는 주체의 필요성이 정당성을 가진다. 거대 제국은 자신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제국의 주체, 제

36) 마가복음 4:9.

37) 요한복음 3:3.

38) 네그리·하트,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서문 참조.

국적 주체, 제국적 시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항하고 대안을 추구하는 주체와 시민을 육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밖의 어디에서도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의 주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은 씨 다시 말해서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지극히 작은 씨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전지구화된 자본 제국의 질서 한가운데서 먹거리만 던져 주면 잠잠해 지는 서민들을 겨자씨 같은 작은 주체로 일깨우는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제국의 지배적 질서를 주체적으로 초월하는 주체성을 육성하는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세계화를 거스르는 정치적 희망을 줄 수 있는 씨앗이다.

세계 각국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정치적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하나님의 주권의 대행자로 행동하는 자야말로 현대적 예수의 주체이다. 또한 현대적 예수의 주체가 예수의 주체와 다른 점은 후자는 로마의 제국적 질서 속의 개체라는 점이고 전자는 자본의 전지구화, 세계화라는 제국적 질서 속의 개체라는 점이다. 전자의 질서는 후자의 질서와 달리 세계 인구의 국제적 이주와 이동,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의 초강화, 국민 국가의 역할 축소와 경계 약화, 그리고 전지구화된 초국가 집단 기구의 권력 강화와 지배력 확대라는 새로운 질서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대적 예수의 주체는 로마 제국 시대처럼 개인의 영웅적 면모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화, 지구화 시대 속에서 개인보다 집단적 협업, 국제 연대적 대응, 요컨대 세계 자본의 전지구화에 대항하면서도 역이용하는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 예수의 주체는 반제국의 주체성을 반드시 세계 자본의 전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세계 자본의 전지구화 현상은 개인의 지적 능력을 벗어나는 광범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이기에 이를 인식하고 전략을 구상할 때 지적 협업, 집단적 지식 생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대적 예수의 주체는 자본 제국의 지구화, 세계화를 누가 수행하고 누구를 또는 무엇을 위해서 퍼뜨리는가에 대해서 반제국의 입장에서 선명하게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대항과 대안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는 전지구화하는 자본 제국의 질서와 현실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주체의 역할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하는 안목도 가져야 한다. 이와 아울러 주체가 이러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현대 한국 사회의 지배 질서와 구조에는 손대지 않고 모든 사회적 조직적 제도적 죄악을 개인의 책임과 잘못으로 돌리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횡행하기 시작하는데 현대 한국 사회 체제의 구조와 지배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반제국적 성품과 덕목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³⁹⁾

주지하듯,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는 세계 자본의 전지구화, 세계화, 국제화의 물살 속에 이미 편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과 시민들은 제국적 현실의 삶 속에서 고단함을 느낀 지 오래다. 유아, 아이, 소년, 청년, 장년, 노령, 고령 세대 할 것 없이 이 제국적 질서가 강요하는 삶의 철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리 없는 절규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자본 제국의 세계화의 험한 파도 속에 있지만 허우적대지 않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비판하고 초월할 수 있는 주체(성)을 나는 메시아적 주체(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삶과 현실은 인간 조건과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고 일반 사람의 삶의

39) 이에 관한 시사적인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 마크 울슨·존 코드·앤 마리 오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김용 옮김, 학이시습, 2015.

생태계의 안정과 안전을 흔들고 찢어놓고 짓이기고 파괴하는 주범이다. 나는 이로부터 비롯되는 주체의 절규와 고통에 공감하고 흡수하며 체휼하는 민주적 심성과 도덕적 영성 그리고 정의감에서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해법으로 찾아가는 주체성을 메시아적 주체성이라고 이름하고 싶다. 제국의 현실에 저항하는 예수의 주체성을 비롯해 이러한 메시아적 주체성을 지구적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통해 식민지화 되어 가는 땅으로 수출하고 이주시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제국의 질서를 세계화하는 현실에 대항하고 거역하는 거룩한 씨를 뿌리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을 제국적 주체들로 식민화하는 세계 자본의 전지구적 수출에 반대하는 대항적, 대안적 역수출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주체성을 단서로 하여 메시아적 주체성을 가르치고 육성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5. 나가는 말

예수와 그 제자들은 지중해와 중동을 제패한 고대의 로마 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과 다른 대안 사회로서 하나님 제국 즉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와 통치를 받는 무리와 공간을 건설해 간 것처럼 현대의 우리도 미국의 패권을 핵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마주하고 있고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다. 아마도 이 새로운 세계 질서는 현대의 새로운 로마 제국에 비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사가 현재 경유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지구 인구가 하나의 통합된 동일한 세계 시장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제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패권을 쥐고 이 세계 질서를 유지·존속·조절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권적 특권적 지위를 지닌 지배 장치⁴⁰⁾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의 지구 제국적 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지구 인구는 하루하루 즉자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고대 로마 제국의 군사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의 지배 질서 속에서 생존했던 유대 사람들과 본질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제국의 세계 질서에 저항하고 봉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은 이러한 즉자적 상태로부터 깨어나는 일에서 시작한다. 즉자적 존재를 대자적 존재로 바꾸어놓는 일은 주체화 일 것이고 우리는 이 주체화 작업을 예수의 주체성에서 보았다.

이 주체화 작업은 현존하는 세계 질서의 지배에 대항하고 새로운 대안 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제일보이다. 예수의 주체화, 주체성은 바로 이러한 사회 변혁의 과제를 위한 시발점이었다.⁴¹⁾ 실제로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⁴²⁾ 예수는 자신이 말한 대로 기존의 성전 체제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과업을 수행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로마의 제국적 질서에 반하는 혁명적 신기원을 이루는 대항·대안 사회의 질서를 열어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40) Daniel F. Silva, *Subjectivity and the Reproduction of Imperial Power*, New York, Routledge, 2016, 1-2쪽 참조.

41) 리처드 호슬리, 『예수와 제국』, 김준우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177-178쪽.

42) 마가복음 11:23.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산”은 정확하게 말해서 당시의 유대교의 성전 제도를 가리킨다. 이 성전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예수의 유대교 개혁의 핵심 성업이었고 이로써 기독교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해방과 구원을 맞보는 충격적 경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적 맥락에서 우리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이 산을 강고한 현존 지배 질서 체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의 현재적 상황과 형태에 반대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항적·대안적 주체성으로서 예수의 주체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필경 우리는 반제국적 주체들이다. 왜냐하면 세계화된 자본주의 제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하며 새로운 대안적 질서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 제국 질서의 지배와 굴종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멸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 왔었다. 이런 꿈꾸는 사람에게 영국의 사학자 홉스봄은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⁴³⁾고 저항의 용기를 주었고 독일의 문학가 바이스는 “모든 판단과 시도와 결정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어야 해”⁴⁴⁾하고 의지의 상실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예언자 호피족은 “우리는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이다”⁴⁵⁾고, 그리고 인도의 정치가 간디는 “너 자신이 네가 세상에서 보기를 원했던 변화가 되어라”⁴⁶⁾고 말해 희망의 노력을 설파했다.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지젝은 “역사로부터의 자유는 [...] 오직 지지자들의 집단 의지에만 의존할 수 있다”⁴⁷⁾고 역설해 옹골찬 주체적 실천과 투쟁으로 연대하고 단합함으로써 구원의 싹을 피울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 요체 일체를 이렇게 집약하고 싶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다.”⁴⁸⁾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옮김, b, 2012.
_____, 『제국의 구조』, 조영일 옮김, b, 2016.
강신주, 『철학이 필요한 시간』, 사계절, 2011.
김상봉, 『학벌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2004.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새번역본).
더글러스 그루타이스, 『철학자 예수』, 이경직 옮김, 연암사, 2013.
레자 아슬란, 『젤롯』, 민경식 옮김, 와이즈베리, 2014.
류익근·윤상진, 『도여서: 예수의 도를 위한 서신』,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리처드 미들턴, 브라이언 왈시,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김기현, 신광은 옮김, 살림, 2007.
리처드 호슬리, 『예수와 제국』, 김준우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원, 2004.
마이런 펜너, 『기독교와 포스트모던 전환』, 한상화 역, CLC, 2013.
마크 올슨·존 코드·앤 마리 오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김용 옮김, 학이시습, 2015.
서동진, 『자유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2009.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편, 『제국의 신』, 동연, 2008.
손규태, 『세계화 시대 기독교의 두 얼굴』, 한울아카데미, 2007.
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옮김, 자음과 모음, 2015.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야로슬라프 펠리칸, 『예수의 역사 2000년』, 김승철 옮김, 동연, 1999.
에릭 홉스봄, 『미완의 시대』, 이희재 옮김, 민음사, 2007.
이훈, 『어떻게 삶을 주도할 것인가』, 모아북스, 2016.
-
- 43) 에릭 홉스봄, 『미완의 시대』, 이희재 옮김, 민음사, 2007, 672쪽.
44) 페터 바이스, 『저항의 미학1』, 탁선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195쪽.
45) 슬라보예 지젝, 『새로운 계급투쟁』, 김희상 옮김, 자음과 모음, 2015, 113쪽.
46) 슬라보예 지젝, 같은 책, 113쪽.
47) 슬라보예 지젝, 같은 책, 115쪽.
48) 갈라디아서 2:20; 3:27.

- 잭 넬슨 폴마이어,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실종된 예수를 되찾는 길』, 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12.
- 조정환, 『지구제국』, 갈무리, 2002.
- 페터 바이스, 『저항의 미학1』, 탁선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 프란츠 힌켈라마르트, 『물신: 죽음의 이데올로기적 무기』, 김항섭 옮김, 다산글방, 1999.
- 프레데릭 르누아르, 『그리스도 철학자』, 김모세, 김용석 옮김, 연암서가, 2009.
- 피터 크리프트, 『예수철학』, 류의근 옮김, 서광사 2010.
- 헤어프리트 뮌클러 『제국: 평천하의 논리』, 공진성 옮김, 책세상, 2015.
- Daniel F. Silva, *Subjectivity and the Reproduction of Imperial Power*, New York, Routledge, 2016.
- Don Cupitt, *Jesus and Philosophy*, London, SCM Press, 2009.
- Jung Mo Sung, *The Subject, Capitalism, and Religion: Horizons of Hope in Complex Societi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 김용규, 「주체로의 복귀와 새로운 윤리의 가능성」, 『대동철학』 43집, 대동철학회, 2008. 6.
- 류의근, 「예배, 정치, 기독교시민교육」, 『신앙과 학문』 17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12.
- _____, 「주체의 사망과 부활」, 『철학연구』 133집, 대한철학회, 2015. 2.
- 서도식, 「시스템과 인간」, 『대동철학』 17집, 대동철학회, 2002. 6.
- 이찬훈, 「현대 사회 구조와 주체성」, 『대동철학』 5집, 대동철학회, 1999. 9.
- 임경석, 「세계화 시대와 소외된 노동」, 『대동철학』 65집, 대동철학회, 2013. 12.
- Enrique Dussell, “The Bread of the Eucharist Celebration as a Sign of Justice in the Community”, *Concilium* 152, no.2, 1982.

<Abstract>

Anti-Imperial Subjectivity: Jesus

Ryu, Eui-geun

It is agreeable that what controls Korean society and people in these days is economic power, media power, and school power or educational capital. These powers are called sovereign ones which dominate society and common people in a whole through control and discipline. When they comes to hegemonic influence, they function as empire or imperialism. I think that our country is manipulated and dominated by imperial power and order. Our life-worlds are imperial and in this respect our selves are imperial. Empire is a way of life and automatically we are imperial subjects.

At this point, we are going to challenge this imperial-colonized subjectivity. This amounts to seek the technology of self which makes individual shift from imperial subjectivity to anti-imperial one. While global capitalism and state as a empire have been acting deliberately for their own profit, resisting and redeeming self is pressed to be driven to the marginal. So, we are positioned in building a subjective militant to transform the present establishment. To educate and foster these people is extremely necessary to criticize and reform the present dominant world order. This business aims at transforming castrated subject yielded to imperial reality into politically fighting subjectivity awakened for himself by relentless imperial oppression.

In awareness of this problematics, I point out what the matter is with the postmodern conception of subjectivity in responding to the issue at stake, and then I propose Jesus as

an anti-imperial subjectivity which means to deny and subvert imperial rulers and authorities. This proposal comes to the point where this anti-imperial subjectivity such as Jesus can be both counter-subjectivity and alternative subjectivity over against empire-subordinated one in revolting from imperial world order and making new society.

* Key Words: empire, anti-imperial, subjectivity, Jesus, global capitalism